

# 장백산천지

제216기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신념에 흔들리지 않는다



##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미혹이 없다

【명혜망】 중국은 신주(神州)라고도 부른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곳은 신의 보살핌을 받는 대지라고 믿었다. 중공이 정권을 강탈한 후, 사람들이 그것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기 위해 무신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신불에 대한 신앙과 현대과학을 대립시켰다. 고대 그리스(古希臘) 철학자 소크라테스(苏格拉底)는 사물의 성장 발전과 훼멸은 우주 중의 고급생명체 - 신이 배치한 것이며 신은 세계의 지배자だ라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오늘의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 내지 못한 것은,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해서이지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중에 만약 무엇이 과학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오직 불법(佛法)뿐이다.”라고 말했다.

신불을 신앙하고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파룬궁(法輪功)서적 ‘전법륜’을 읽은 후, 암이 사라지고, 16년이나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도 파룬궁을 수련한지 2개월만에 다시 일어났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를 성심으로 읽으면 재난을 피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세상의 도리로는 똑똑히 설명 할수도 없는 일이다.

1998년 9월 국가체육총국에서 파룬궁 수련생 12,553명을 조사했는데 97.9%가 병이 나아 건강해졌다 고 나왔다. 국가체육총국 조사 보고서에는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아주 초상적인 효과가 있다. 현대 의학에서 설명할수 있는 범위를 훨

씬 초월했다. 이 초상적인 과학현상은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깊이 사고하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파룬따파가 우주 중의 최고진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기만, 협박, 회유, 고문으로도 그들에게 파룬따파를 포기하게 하고 떠나게 할 수 없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미혹(迷)이 없다. 2002년 6월 귀주성(贵州省) 평탕현(平塘县) 장포향(掌布乡)에서 ‘장자석’을 발견했다. 500년 전에 붕괴된 이 돌의 절단면에 놀랍게도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란 여섯 글자가 나타났다.

중공(中共)은 신불을 비방하고 천지를 모독하며 사람을 수없이 살해했으니 하늘에서 어찌 벌을 내리지 않겠는가? 지혜로운 자는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기인한 돌로 ‘천멸중공(天滅中共)’의 뜻을 세인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누가 중공 조직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의 일원이 되어, 반드시 그 매장품이 될 것이다.

현재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시기이다. 모두 귀를 열어 많이 듣고, 보고, 생각을 해야 하며 동시에 진상을 알아야만이 길을 잊지 않는다.

## 길림감옥 - 진정한 ‘세간의 지옥’

【명혜망】 길림 감옥의 흉악한 교도관들은 감형(減刑) 혹은 가점(加分) 등의 수단으로 죄수를 시켜 파룬궁 수련생을 자주 폭행한다.

그들은 비열한 망나니 수단으로 파

룬궁 수련생의 ‘진 · 선 · 인(眞 · 善 · 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 한다. 각종 고문을 가해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데 교도관이 직접 할 때도 있다. 지금까지 길림감옥에서 살해당

한 파룬궁 수련생은 20명이다.

파룬궁 수련생 학영강(郝迎強)은 길림성 교도소에서 고문당해 배가 부풀고 하리뼈가 드러났으며 턱뼈가 부러지고 폐에 물이 쌌다. (뒷면에 계속)



학영강

생명이 위독해 가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학영강, 49세, 한족, 길림성 연길시 사람, 전 길림성 연길시 량식저비고(储备库)보위과 과장. 길림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학영강은 연길노교소, 룽정시감수소, 연길시감수소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고 2002년 5월 연길시법원에서 누명을 쓰고 8년 판결을 받은 후 길림 감옥으로 이감되어 계속 박해를 당했다.

길림 감옥 교도관 맹해군(孟海军)은 형사범 왕홍민(王洪敏 연길사람), 곽홍강(郭洪刚 길림사람)등 몇 명을 시켜 학영강을 장기간 괴롭혔다. 학영강은 24시간 감시 받았고, 한번은 화장실 갈 때 그들에게 말을 안 했다고 죄수 왕홍민과 왕룡하(王龙河)등 몇 명이 널판자와 걸상으로 학영강을 구타했다. 학영강은 왼쪽 얼굴뼈가 부러지고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 부위가 썩어 큰구멍이 생겼다. 길림 감옥의 이러한 장기적인 박해 속에서 2003년 4월경 원래 몸무게가 80kg이었던 건장한 학영강은 절반이나 줄어 40kg도 안 되었다. 배는 쌍둥이를 임신한 듯 부풀었는데, 의사는 간경화복수(肝硬化腹水) 말기로 3개

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길림 감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영강을 보석치료로 석방하는데 동의했다.

2005년 2월 학영강은 룽정시, 연길시와 길림 감옥에서 받은 박해 사실을 명예망에 폭로했다. 연변시 '610'주임 오경림(吳景林)은 연길시 국보대대, 연길시 '610', 길림 감옥 등 부문의 경찰들과 연합하여 2005년 3월 10일경 학영강이 장춘에 가서 헤이룽이즈감옥(黑嘴子监狱)에 오래동안 갇힌 아내 양명방(楊明芳)을 보러가는 기회에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학영강을 길림 감옥으로 납치했다.

2006년 4월 학영강은 감옥에서 박해로 다시 한번 생명이 위독했다. 길림감옥은 그를 두번째 가석방 해주려 했지만, 소빈(肖彬)이 직접 달려와 석방하지 못하게 했다. 현지에서 그를 받지 않고 연길시 "610" 사무실에서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현지 파출소 3곳에서는 소빈의 압력으로 감히 받는다는 서명을 하지 못했다. 2006년 4월 30일 학영강이 위독하자 길림감옥은 학영강이 감옥에서 죽을 경우 책임을 감당해야 하므로 현지에서 받든 말든 두 번째로 가석방했다.

학영강이 감옥에서 나올 때 가족이 보니, 그의 허리부위에 난 썩은 구멍으로 허리뼈가 밖으로 드러났고, 얼굴 왼쪽 광대뼈가 부러지고, 폐에 물이 찼으며, 호흡이 곤란하고, 손톱은 멍이 들어 어혈이 있어 내리쳐진 흔적이 있었다. 오른쪽 귀는 듣지 못하고, 대변에 피가 석여나왔으며 간은 맞아서 망가져 기능을 상실하였고 배가 부풀어 커졌으며 전신이 부어서 매일 침대에서

돌아눕지도 못해 극히 고통스러워 했다. 2006년 6월 8일 학영강은 49세의 나이로 고통스러운 비명 속에서 인간세상을 떠났다.

학영강의 왼쪽 광대뼈는 2002년에 죄수 왕홍민에게 맞아 부러졌는데 2006년 6월 8일 비참하게 세상을 뜰 때까지 4년이란 시간 동안 그의 부러진 뼈는 길림 감옥에서 치료받지 못했다. 이 상처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생명을 초개같이 여겼다.



학영강이 박해받아 간복수된 사진



길림감옥에서 감옥 교도관 맹해군(孟海军)이 왕홍민과 왕룡하 등 죄수를 시켜 널판자와 걸상으로 학영강을 폭행해 허리에 구멍이 났다.



학영강은 박해로 간복수가 생겼는데, 등에 호스를 꽂고 물을 빼내고 있다.